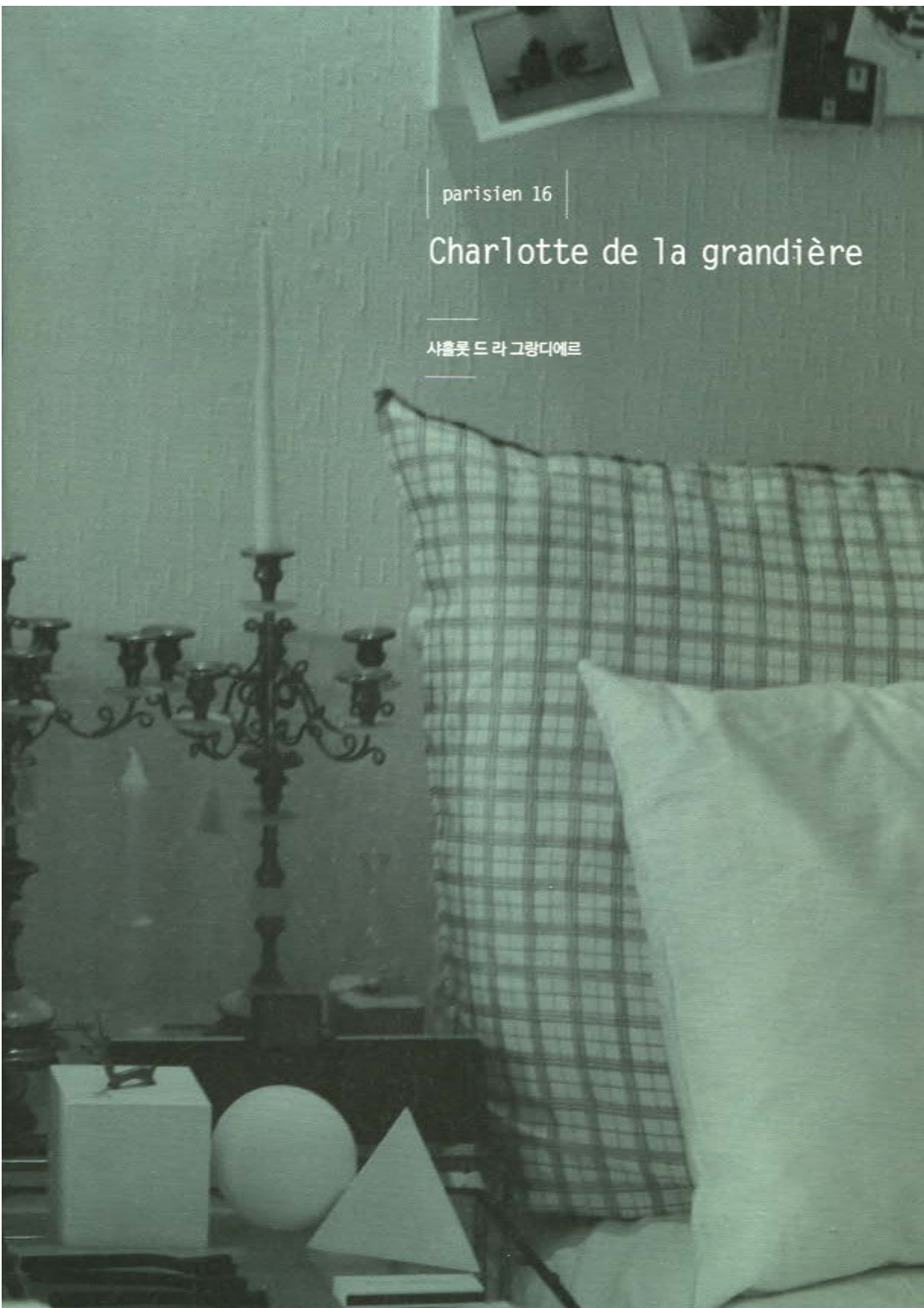


parisien 16

Charlotte de la grandière

샤를롯 드 라 그랑디에르



흰색으로 잘 정돈된 공간은
그녀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피는
원단을 연상시켰다.





■ charlotte
de la grandière



▲ 서울로
드라그랑디에르

